

“이제 시작, 국민만 보고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인터뷰

“

호남이 지지하면 과반 승리 확신

패권정치로는 협치도 통합도 못해

집권하면 안보실장 가장 먼저 임명

6자회담 재개 등 햇볕정책 발전시킬 것

호남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만들겠다

”



-대선 출마선언 이후 10%대 내외의 지지율이 호남권 후보 경선을 시작으로 30%를 넘어서는 등 급등했다. 동력이 무엇인가.

▲첫째, 국민적 변화의 열망이다. “나라를 제대로 바꿔 달라”는 국민들의 명령이다. 불공정한 사회의 반칙과 특권을 몰아내고, 성실과 노력이 평가받는 공정한 사회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둘째, 정치의 변화다. 정치를 시작하면서 기득권 정치 바꾸고자 했던 그 변화가 이제 시작된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은 ‘진보-보수’ 평가하기 할 때가 아니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제 국민은 누가 더 좋은 미래를 만들 것인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민이 미래로 앞서가고 있는데, 정치가 뒤에서 ‘보수-진보’에 갇혀 발목 잡아서 안 된다.

-하지만 가파른 지지율 상승세가 최근 주춤한 상황이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연대론을 얘기할 때도 국민만 보고 여기까지 왔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남은 기간 국민만 바라보고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국민의 판단을 믿는다.

-양강 구도를 예견하면서 화제가 된 바 됐다. 대선 결과를 예측한다.

▲3월에 바람이 불고 4월에 비가 내려 5월에 승리한다고 했다. 3월에 안철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4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하자 비가 왔다. 5월에는 승리할 것이다. 안철수를 넘어 국민이, 시대가 승리할 것이다. 시대 정신이 저에게 있다. 자신있다.

-호남 민심의 지지를 확인하는가.

▲호남은 저의 정치적 고향이다. 호남에서 저를 정치로 불러주시고 키워주셨다. 창당하고 광야에서 있을 때 손 내밀어 주신 곳도 호남이다. 호남의 지지로 지난 총선 전국 2위의 지지율로 승리할 수 있었다. 호남에서 시작된 총선 녹색물풍이 이젠 대선 녹색태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호남이 지지하면 전 지역에서 승리하고 50% 이상 득표로 당선될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에 비해 당선 가능성이 낮게 나온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는 기정사실이 됐다. 국민은 이제 누가 더 좋은 정권교체인지 주시하고 있다. 다음 정부 3대 키워드는 미래·유능·통합이다. 누가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국민이 평가할 것이다. 민심은 더 좋은 정권교체를 선택할 것이다.

-보수의 지지가 끝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나.

▲정치는 특정 지지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 저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어왔다. 앞으로도 제 비전, 정책과 리더십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보수, 진보 등 진영 논리와 지역을 넘어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이다.

-연정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있다.

▲국민이 구성해준 정치구조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우선 여야를 아우르는 협치를 할 것이다. 하지만 대선 후



각 정당과 정치 지형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개혁과 미래를 위해 뜻을 함께하는 많은 이들과 힘을 모을 것이다.

-39석 정당으로 협치를 통한 정국 운영이 가능한가.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개원을 30년 만에 가장 빨리 성사시켰다. 국민의당이 없었으면 추가경정예산도 무산됐을 것이며 법정 시한 내의 새해 예산 통과도 어려웠을 것이다. 국민의당은 수권정당으로서 협치의 능력과 성과를 이미 충분히 보여줬다. 다당제에서 협치 능력도, 통합 능력도 없는 패권세력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가장 나쁘다. 민주당의 패권정치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불행해지고, 무엇보다 국민이 불행해진다.

-정부 각료 인선 등에 대한 생각은.

▲집권하면 안보실장을 가장 먼저 임명하겠다. 안보는 국가의 뿌리이자 근본이다. 저는 새로운 캐비닛이 아닌 오픈 캐비닛으로 운영하겠다. 상대방 캠프에 있는 사람이라도 최고 책임자라면 그 사람을 쓰겠다는 것이다. 정당의 경계를 넘어서 인재를 등용하겠다. 유능함과 실력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함께해야 한다.

-안보 위기 상황이다. 안보 위기 해법과 햇볕 정책 계승에 대한 입장은.

▲안보는 국가의 근본이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첨단 국방력을 갖춰 대북 우위 군사력을 유지하는 자강안보를 통해 평화를 지키겠다.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를 지속하면서도, 4차 및 6자회담 재개 등 국제협력 체제를 지렛대 삼는 한편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을 추진할 것이다.

-경제 회복의 방안과 경제 지표 공약은.

▲경제가 미약하게나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의 문제는 경기 순환 과정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 측면이 강하다. 단기적 성과와 경제 지표에 연연하기 보다는 긴 호흡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 4차 산업혁명 등을 대비하며 미래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겠다.

-국정 우선 과제를 제시한다.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패권주의 체제 해체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여기에 ‘우병우 사단’ 정리 등 검찰 개혁과 재벌 개혁 등도 시급한 국정 과제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을 강력 추진하겠다. 공정 경제와 공정 사회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누구나 공정

하게 경쟁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전향적인 편 가르기 패권정치의 목소리다.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모두 적폐라고 한 것이다. 그것은 경쟁자에 대한 비판을 넘어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선전포고다. 도대체 어떻게 통합하려는 것인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정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편 가르기 사고방식이야말로 적폐고 청산 대상이다.

-패권주의를 강력 비난하고 있는데.

▲패권정치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트렸기 때문이다. 패권정치로 인해 정치가 분열되고 국민이 분열됐다. 국민을 적폐로 보는 패권정치가 말로 정신해야할 적폐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권 교체가 아닌 친박에서 친문으로 패권교체다. 친박도 살아나게 된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호남 민심의 분노가 크다.

▲국민의당 제1호 법안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날조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이다. 박 처장은 당연히 해임해야 한다. 이미 국회도 결의안을 통해 의사표현을 했다. 인사권자가 되면 즉각 교체하겠다. 5·18 민주화운동의 위상을 높이고 발포 명령자를 반드시 찾아내겠다. 다음달 18일, 대통령이 돼서 기념식에 참석,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겠다.

-안철수가 승리하면 호남이 어떻게 달라지나.

▲20년 전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IT 혁명을 이뤘고 20년 간 그 힘으로 먹고살았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2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 호남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 미래 자동차 산업과 국가우주항공산업 거점육성,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 등 호남 미래 프로젝트를 즉시 실행하겠다. 호남을 국가균형발전의 모델로 만들겠다. 지긋지긋한 호남 소외와 호남 차별을 뿌리 뽑겠다. 약속드린다.

-쌀 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수산 정책 등 어민을 위한 비전이 있다.

▲전남은 우리나라 농업의 보루다. 농도 전남의 미래를 위해 폭락한 쌀값을 안정시키겠다. 쌀 생산조정 기능을 담은 ‘식량생산안정제 119 조치’를 시행하겠다. 벼 이외에 타 작물을 재배할 경우 소득 감소분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드론, 위성,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융합, 농촌의 미래를 열어가겠다. 전남에 수산(양식) 식품 수출단지를 조성,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별 대규모 산단, 성육단지를 조성하고 수산 종묘 방류를 확대하겠다.

-호남 민심에 드릴 말씀이 있다.

▲안철수의 시간, 안철수의 바람은 호남에서 시작됐다. 이제 호남의 압도적 지지로 더 좋은 정권교체 이루겠다. 호남의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을 바꾼다. 호남 정신을 되살리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을 이어가겠다.

/정리=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한민국의 전기가 뚜뚜뚜해집니다

한전KDN의 ICT기술력으로 더 안전하고 더 스마트해집니다

전력과 ICT의 만남으로 에너지ICT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린에너지 세상의 리더 한전KDN
고품질의 전기를 안전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에서 송변전, 배전, 판매까지 전력계통은 물론,
창의와 융합으로 스마트그리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일보
since 1952

Kdn 한전KDN